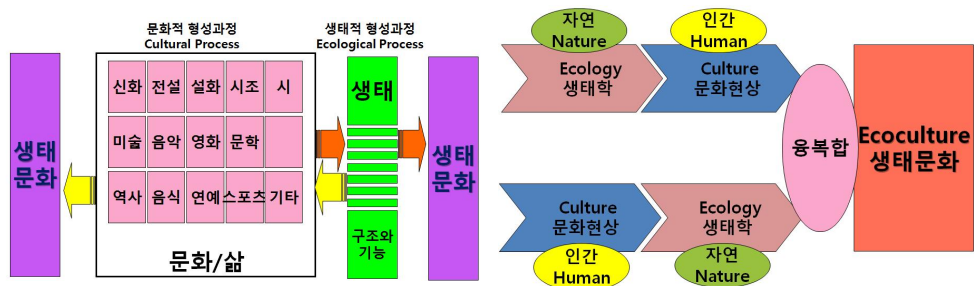


생태문화도시 세부지표의 구성을 생태, 문화, 인간환경 3요소를 융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지표를 결합하고 분류하고자 하였다.

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2008)에서는 생태문화도시요소를 기존 생태도시계획지표 구성에서 물리적 계획과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평가척도 및 세부지표 속에 녹아들여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
박미옥(2014)은 생태문화를 문화적 형성과정과 생태적 형성과정의 융복합적 현상으로 정리하고 생태학적 대상을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또는 문화적 현상을 생태학적 원리로 해석하는 융복합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.



<그림 8> 생태문화에서의 융복합적 현상과 접근 방법(박미옥, 2014)

평가지표로는 건전한 생태계의 보존은 도시 내 양호하고 건전한 생태적,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도시의 환경자원을 지표로 도출하였으며, 생태문화자원의 다양성, 쾌적성, 안정성 등을 제시하였다.

자원의 현명한 이용이란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지표로 도출하였으며, 이를 이루는 이용의 형태로 정책 및 복지 등 생태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다.

지속가능한 관리란 도시환경 및 문화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지표로